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서 상 열*

〈 목 차 〉

- I. 서 론
- II. 국제 테러리즘의 이론적 배경
- III. 국제 테러리즘의 사례분석
- IV. 국제 테러리즘 대응체제 구축방안
- V. 결 론

〈요 약〉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요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며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주제어 : 테러, 테러리즘, 對테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테러리즘은 21세기에 새로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그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희랍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인류 역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해온 정치,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을 기아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있으나, 문명의 이기(利器)의 오용으로 인한 전쟁, 범죄, 환경파괴 등 그 폐해 또한 심각한 실정이며 인류를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3가지 요소의 첫째는 재래식 전쟁(conventional war)이며, 둘째는 핵으로부터의 공포(nuclear war), 셋째는 테러리즘(terrorism)으로부터의 위협이다(최진태, 1997).

현대의 과학기술 발달과 도시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테러리즘 위협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인간들 간의 이해관계, 이념상의 충돌, 문명간의 갈등,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이 점증되고 있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탄테러사건, 일본 동경 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사건 그리고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암살사건에서부터 2001년 9월11일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본토 심장부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에 납치된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는 뉴 테러리즘(New Terrorism)이란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테러리즘의 3대 유형인 폭탄공격과 항공기납치, 인질납치를 총동원 하다시피 한 미 테러리즘은 방대하고 치밀한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21세기 테러리즘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A new form of warfare)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테러리즘은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 측면이 강했으나 뉴 테러리즘(New Terrorism)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쟁에서는 적의 궤멸이 목적이므로 승리 이외의 요구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최대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대 테러리즘은 최정예 테러리스트들이 고도의 치밀함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쟁의 형태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그 무대도 세계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 테러리즘 양상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무기 및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와 정보화사회 도래로 다양한 사이버 테러리즘(Cyber Terrorism)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1세기 테러리즘은 테러범의 신분을 알 수 없고, 테러목적의 불명확성, 테러 대상자의 무차별성, 테러의 무제한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 테러리즘이 성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세계도처에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력이 신장하고 활동무대가 세계화됨에 따라 이들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테러리즘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화, 개방화, 다양화, 정보화, 과학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21세기 테러리즘의 개념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전문 서적 및 학계의 연구 논문과 국방대 안보정책과정 교재 및 강의내용 그리고 각종 안보관련 세미나 자료와 간행물 등 각종 문헌자료와 국가정보원 등 테러리즘과 관련된 기관의 발

표문 및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 인터넷 테러리즘 관련 site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고, 이론과 실무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참조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각종 참고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고찰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제한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국제 테러리즘의 이론적 배경

1. 국제 테러리즘의 동향

1) 테러 주체의 변화

냉전시대에는 국가나 준 국가 집단 또는 좌익 집단이 테러의 주체였다. 북한, 쿠바, 시리아 등이 대표적인 테러 국가였고, 팔레스타인의 인민해방기구(PLO)가 준국가 집단의 대표였으며, 뒤에서 살펴 볼 서방세계의 몇몇 집단이 좌익 단체의 대표였다. 탈냉전이 되면서 이러한 테러의 주체가 변하고 있다. 테러의 주체가 변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련과 공산권의 붕괴 때문이고, 또 하나는 PLO의 국제적 위상 획득 때문이었다.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이념을 목적으로 한 테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은 1988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쿠바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의 지원이 끊기면서 더 이상 이념 수출을 목적으로 한 테러는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럽 좌익 테러집단인 이태리의 붉은 여단(Red Brigade), 독일의 붉은 군대(Red Army), 프랑스의 직접행동(Direct Action), 벨기에의 공산주의 전투단(Communist Combatant Cells)이 한때 이념을 목표로 살상을 일삼는 테러조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이념적 지표의 상실과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물질적 지원 감소로 인해 그들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했으며, 독일 붉은 군대의 경우는 집단의 종말을 선포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항공기 테러의 진원지였던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PLO가 국제

사회로부터 준 국가집단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1993년부터 현저하게 국제테러를 자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이 되면서 테러의 주체는 누구인가? 비록 콜롬비아의 혁명군대(FARC)와 국가해방군(ELN),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 그리고 스페인의 바스크 모국해방운동(ETA)등이 이념과 독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두드러진 특징은 좌절감에 빠진 종교에 기반을 둔 테러 집단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1995년 동경 지하철역에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2명의 사망자와 5,0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옴진리교가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슬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이슬람 테러 집단이 보편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슬람 테러집단이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아라파트(Yasir Arafat) 의장의 온건 노선을 비판하고 중동 평화과정을 반대하는 각종 집단들을 이란과 시리아가 지원함에 따라 이들 집단들이 테러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Lebanese Hizballah)와 하마스(HAMAS),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alestine Islamic Jihad: PIJ),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총사령부(PFLP-GC)에 자금, 도피처, 훈련 및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리아 또한 PFLP-GC, PIJ,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훈련 기지나 기타 시설물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이들과 하마스가 다마스쿠스에 그들의 본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01).

둘째, 1979년에 발생한 이란 혁명의 여파로 이슬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열기가 테러분자들을 자극하는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150년 간이나 지속되었던 서구의 이슬람 식민지배로 인해, 이슬람 세계는 일찍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았다(하정호, 2001). 아랍 민족주의 노선은 나세르의 시기에 한 때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중세 이전부터 있어 온 이슬람권 내부 각 지역 세력의 부족주의적 이합집산 양상과 주도권 다툼으로 큰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송도영, 2001), 그 후에 받아들인 사회주의도 결국 뿌리를 내릴 수 없

었다. 결국 이란의 호메이니는 유럽 기독교권에 맞서 최소한 동등했거나 때로 승리했던 과거의 영광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찾으려 했다. 현대에 등장한 이슬람 근본주의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당면하게 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은 좌절에 대한 반작용이며(송도영, 2001), 이는 테러분자들의 정신적 신념으로 재무장되고 있다.

셋째, 아프가니스탄이 구 소련과 벌인 10년 간 전쟁의 유산으로 이슬람 테러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구 소련과 구 소련이 후원했던 나지블라(Najibullah)정권에 대항하여, 아프가니스탄 민병대가 이슬람 전사(mujaheddin)전쟁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경험이 이슬람 테러분자들을 오늘과 내일의 테러 주체로 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간 민병대는 아프가니스탄 인만이 아니라 성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많은 무슬림 젊은이들로 구성된 다국적 민병대(아프간 아랍인)¹⁾였다(황의방·한영탁, 2001). 이 전쟁은 이들에게 테러 관련 기술과 경험을 전수했으며, 서로 다른 민족성을 지닌 전투요원들에게 고도의 극단주의적 테러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이 차후 초국가적인 테러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소련은 1989년 아프간에서 철수했으며 1992년 나지블라 정권도 붕괴되었다. 그 이후 탈레반(Taliban)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아프간은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배양소 역할을 수행했다. 수단에서 추방된 빈 라덴²⁾과 탈레반 레짐의 비호아래 아프간에 머물면서 알 카이다(al-Qaida) 조직을 확대하고 지

1) 3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25,000여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

2)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빈 라덴은 소련과의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간으로 갔으며, 소련군이 철수하자 사우디로 귀국했다. 걸프전이 발생하자 빈 라덴은 미군의 사우디 주둔에 반대했으며, 걸프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0명 규모의 미군이 리야드와 다란에 계속 머물자 그는 사우디의 기성 체제를 겨냥하게 되었고, 1991년 가을 예멘에서 사우디로 무기를 밀수하려는 기도가 빈 라덴과 관련되자 사우디는 그를 추방했으며, 1994년에는 그의 국적을 박탈하기도 했다. 그는 수단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아프간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테러 훈련을 시켰다. 수단에 거주하면서 그는 소말리아의 희망회복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미군이 잠시 투숙하는 예멘의 한 호텔에 대한 폭탄 테러 개입 의혹, 소말리아에서의 개입 혐의, 에티오피아를 방문중이었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암살 음모 개입 사건 등으로 그는 수단에서 다시 아프간으로 이동(1996년 5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손님'의 신분으로서, 1998년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에 대한 자폭테러(1998년 8월 7일, 이 사건으로 213명이 사망하고 4500명 이상이 부상했다)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미 대사관 자폭테러(같은 날, 10분 차이의 자폭테러, 이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했다)의 책임자로 미국 법정에 기소되었다. 전게서, pp.241-392

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9·11테러의 주체가 보여주듯이 21세기 테러의 주체는 당분간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영성한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FLP, PFLP-GC, PIJ,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알 카이다 등이 21세기 테러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러와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21세기 테러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들은 특정지역에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 정부세력과 연계하여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실패하고 있는 국가에 침투하여 테러를 행사할 수 있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0). 그러나 테러의 중추 세력과 대규모의 테러는 전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2) 테러 목적의 변화

냉전 시대의 테러 목적은 민족해방·국가독립, 좌익 혁명, 종교적 근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테러의 빈도도 대략 이 순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면서 테러 목적에 따른 빈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좌익 혁명을 위한 테러는 현격히 감소되었으나, 민족해방·국가독립을 위한 테러는 소련권의 분할과 발칸반도의 분할 과정에서 현격히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종교적 근본주의나 사회·심리적 목적의 테러, 또는 이들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가 테러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9·11테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러가 발생하면 대부분 테러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물론 이번에 발생한 이스라엘에서의 테러도 하마스와 PIJ가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다. 그러나 9·11테러에 대해서는 빈 라덴과 알 카이다 조직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히 누구의 소행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테러의 주체가 이들이라면 이들의 테러 목적을 유추할 수는 있다.

21세기의 테러분자들은 서구의 특정한 정책보다는 서구 문명 자체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때문에, 극단적 종교 교리 때문에, 또는 국가를 넘어 특정한 지

역 통제를 위해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의 테러 발생 원인은 과거에 비해 보다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 테러가 대량살상을 추구하는 한, 그리고 미국을 목표로 하는 한, 테러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꺼려할 것이고 테러의 목적은 더욱 애매한 상태로 남게될 것이다. 또한 동경 지하철역의 사린가스 살포와 오클라호마 연방건물에 대한 폭탄 테러처럼 뚜렷한 목적도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슈퍼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테러 대상의 변화

냉전시 테러의 대상은 주로 주요 인물이거나 또는 일부 불특정 시민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 대한 테러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대한의 공포심 확대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테러분자들은, 불특정 시민들이 운집하는 장소, 즉 공공건물, 쇼핑센터, 디스코장, 회의장, 또는 지하철역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다. 21세기 테러는 대형 폭발 또는 대량 학살을 전제로 특정한 국가의 시민들이나 시설물, 비전투 중인 군인이나 군사 시설물, 또는 특정 문명권의 시설물이나 시민이 될 것이다.

4) 테러 방법의 변화

냉전시 테러분자들은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살이나, 항공기 납치, 또는 시설물을 점거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때 사용된 무기는 주로 소화기나 조잡한 폭탄 정도였다. 냉전시의 테러분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테러에 개입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면서 테러분자들은 차량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탄테러를 하거나 또는 시설물에 폭탄을 설치하여 테러를 감행했다. 또한 테러분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테러와 함께 희생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는 기존의 폭탄테러와 함께 9·11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에 의한 테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84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 식당 물컵 및 샐러드 바에서 살모넬라균이

살포되어 751명의 환자가 발생한 생물학 테러 사건이나, 음 진리교에 의한 화학 테러사건은 오히려 지난 세기의 예외적 테러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지난 10월 4일 플로리다 주 아메리칸 미디어사 직원의 탄저병 감염을 시작으로 주요 언론기관, 의회, 대법원, 행정부처 등에서도 탄저균이 함유된 우편물이 발견되고 또 일부 인원이 사망함으로써 CBRN테러는 21세기 테러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경고했듯이 항공기를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키거나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방사능 폭탄(dirty bomb)'(중앙일보, 2001.12.6)³⁾을 폭발시킬 가능성(조선일보, 2001.11.2)도 새로운 세기의 테러 방법이 될 것이다.

2. 국제 테러리즘의 특성

서방 국가들이 주창해 온 '글로벌화 시대'에 상응하는 신개념의 폭력과 긴장, 갈등의 유형이 현실화된 뉴 테러리즘의 발생이 초강대국 미국 경제, 군사력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9·11 테러참사는 21세기 지구촌이 새로운 유형의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납치된 민간항공기를 110층 고층 건물에 충돌시키는 충격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핵이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테러 혹은 국가 주요 컴퓨터망을 목표로 하는 소위 사이버 테러리즘(Cyber Terrorism)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21세기 뉴 테러리즘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0세기 전통적 테러조직들과 인터넷과 같은 세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테러조직의 연계를 통한 국제테러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테러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 밀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범죄(마약)조직과의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경악시킨 미증유의 9·11 테러사건은 무차별적인 대량 인명 살상, 동기를 분명히 하지 않은 테러, 대중의 지지를 의식하지 않은 테러 등 1990년대

3) 미 Washington Post는 12월4일, "빈 라덴이 초보적인 방사능 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수중에 넣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은 빈 라덴이 사용 후 핵 연료나 의료용 세슘 137 등 방사능 물질을 재래식 폭탄으로 포장해 방사능 폭탄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번지기 시작한 현대 테러리즘인 뉴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면,

1) 요구조건·공격주체 불명으로 추적 곤란

과거의 테러는 식민지 세력의 잔재를 청산한다든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테러를 자행한 뒤 통상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면서 요구조건을 뚜렷이 밝혔으나, 뉴 테러리즘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대한 사탄 문화’와 지역패권에 대한 반대 등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감행하는데 테러집단 자신과 비호세력을 보호하고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이 없는 테러’를 자행, 색출·근절이 더욱 곤란하다.

2)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

과거의 테러는 요인암살, 항공기·인질 납치, 중요시설 점거 등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선전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선택, 많은 희생자를 내기보다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이 강했으나, 뉴 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로써 자행되며, 전쟁에서는 적의 궤멸이 목적이므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타격을 가하려고 기도,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3)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 곤란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조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수직형 체제로서 정점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테러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었지만, 뉴 테러리즘에서는 상대가 단일화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서 인터넷 비밀사이트·전자메일·채팅룸 및 첨단 이동통신 등을 연락수단으로 활용하며, 중심이 다원화되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정보화시대의 網전쟁”(Netwar)으로 불린다.

4)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시간 부족

미국 테러의 경우 수년에 걸쳐 항공기 조종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정작 테러시간은 초대형 여객기를 납치, 빌딩에 자살충돌 하기까지 40-50분만에 상황이 종료, 대처시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對테러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5) 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 곤란

전통적 테러장비(무기)로는 저격용 총기나 폭발물 등이 사용되어 공항만이나 행사장 보안검색을 강화시 어느 정도 색출이 가능했으나 미국 테러에서는 별도의 테러장비가 없이 서류절단용 칼만으로 여객기를 납치, 빌딩에 충돌시키는 초유의 수법을 구사하였는바 주유소 및 기름·LPG 운반차량 등 일상 주위에 널려 있는 위험시설·장비가 그 지배권만 탈취되면 모두 테러장비가 될 수 있어 방어·색출이 어렵다.

6) 대량 살상무기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방식 필요

과거 화생방 무기의 사용은 1, 2차 세계대전, 걸프전 등 주로 전쟁이나 대규모 분쟁에서 사용되었는데, 95년 일본 음 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테러에서는 처음으로 세균무기(탄저균)을 사용, 인명피해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세균을 사용하는 생물테러는 저렴한 비용과 엄청난 인명살상 효과로 '貧者의 核'으로 불리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와는 전혀 다른 대처방식이 필요하다.

7)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

현대는 '개방화 시대' 언론에 대한 상황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Global Communication' 시대로서 지구촌의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사건도 반대쪽으로 신속히 전파되는데, 미국 테러에서는 CNN이 24시간 상황을 보도했고, 국내에서도 거의 전 방송국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보도함으로써 테러범들이 노리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특히, TV는 테러사건 현장의 생생한 동영상 화면을 방영, 절실한 공포감을 유발하였다.

8) 사건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 증대

종전의 테러는 협상팀·특공대의 투입으로 대부분 현장처리가 가능하였으나, 뉴 테러리즘에서는 사건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대형화됨에 따라 최고 통치자의 결심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아져 정치적 부담이 증대된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의 긴박성을 감안, 납치 항공기 격추명령 권한을 공군 장성들에게 위임했는데, 실제 민간여객기 격추시 큰 정치적 문제 포기도 가능하다.

9) 중산층·인텔리를 충원, 테러의 지능화

90년대까지의 테러 행동대원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 출신으로 기초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뉴 테러리스트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중산층 출신들로 대부분 대학 재학생 이상이고, 특히 공학 또는 과학분야 전공자들이 선호되는데 이 경우 비행기 조종이나 폭탄의 기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임무 성공률이 높아지며, 미국 테러범 중 한명인 「무하마드 아타」 역시 변호사인 아버지와 대학교수인 형제들 사이에서 유복하게 자란 함부르크 대학의 도시공학과 학생이었다. 또한 과거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테러 행동대원들을 직접 모집했으나, 최근에는 유럽과 미주권의 이민 2세들을 충원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들은 테러 실행 전부터 각종 범죄기록을 갖고 있던 과거의 테러리스트들과는 달리 전혀 범죄혼적이나 정치적 활동이 없어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뉴 테러리스트들은 정신병적인 종교적·정치적 신념으로 무장하고 테러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 이상과 같이 뉴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1세기 국제사회는 각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간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이념·민족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활동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과거 전통적인 테러리즘보다 진일보된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사용이 서막을 올렸다.

Ⅲ. 국제 테러리즘의 사례분석

1.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기구(PLO)의 테러리즘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범 후 그런대로 추진되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 평화과정은 2000년 9월 28일 양측의 유혈테러분쟁이 재발되면서 오늘까지 뒷걸음질쳐왔다. 그 원인은 주로 이스라엘 강경파와 PLO 산하 과격 테러단체들 옹고집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과격 테러단체들은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과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선>, 헤즈블라, 하마스, 지하드 등으로서 이 단체들은 가자지구 점령 이스라엘군 축출과 동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환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까지의 쌍방유혈 테러전의 직접 촉발원인은 2000년 9월 28일 현재 이스라엘 총리며 당시 리쿠드당 아리엘 샤론 당수가 이슬람교와 유대교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 팔레스타인 민족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유혈 테러전이 재발된 후 2001년 11월까지 1년2개월이 지났어도 평화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팔레스타인측의 자살테러공격이 잇달아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도 양측 온건파의 노력과 외부중재로 간간이 평화의 싹이 엿보이기도 했다. 미국 중재로 양측사이 네 번의 휴전이 있었으나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번번이 깨졌다.

외신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테러리즘과 무력충돌로 숨진 사람은 이스라엘인 169명, 팔레스타인인 633명, 외국인 23명 등 모두 82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부녀자 등 무고한 민간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동아일보, 2001.9.28). 그 후 11월까지의 사상자들을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과 시몬 페러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9월26일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갖고 휴전감시공동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에 잇따른 팔레스타인측 자살테러공격과 요인암살 그리고 이스라엘측 보복살인은 이런 평화노력의 실천을 가로막았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에

분쟁종식을 위한 미첼보고서 평화안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와 영국 등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번스 중동특사도 임명해 중재역할을 맡기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다(세계일보, 2001.5.23). 지난 1년 간 팔레스타인의 슬한 자살테러공격이 있었지만 충격적인 사건은 2001년 8월 27일 이스라엘군의 로켓 공격으로 PLO 급진분파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지도자 아부 알리 무스타파가 살해된 것이다. 또 하나의 큰 테러사건은 10월 1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요원의 총격으로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의 한사람인 레하밤 지비 관광장관(74)이 숨진 것이다. 이 테러공격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은 이스라엘군이 8월 27일 미사일 공격으로 알리 아부 무스타파 지도자를 살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지비 장관을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비 장관은 숨지기 전 샤론 총리의 휴전안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평소 요르단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골수 강경파였다(동아일보, 2001.10.18).

지비 장관의 피살은 미국 정부의 관심집중으로 잠시 계속된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의 장악력이 떨어진데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측의 강경파들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40여년간 PLO측이 저지른 대 이스라엘 테러공격과 이스라엘 측의 보복 군사공격 사례들은 무수하지만 모두 다 열거할 필요는 없다.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PLO 자살테러공격 가운데서도 비교적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된 경우만도 4건에 사망 47명, 부상 211명이고 이스라엘 측 보복공격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대표적 팔레스타인 측 자살폭탄 테러공격은 2001년 6월 1일 밤 텔 아비브의 한 디스코 클럽에서 일어났다. 이 자살폭탄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19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폭탄테러범도 현장에서 숨졌다.

또 하나의 자살폭탄 테러공격은 2001년 8월 9일 발생했다. 이 자살폭탄 테러로 이날 낮 예루살렘 중심가 한 피자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어린이 6명과 손님들 1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목격자들은 “주변거리가 온통 피로 물들었다”고 당시의 끔찍한 살인테러장면을 전했다(동아일보, 2001.8.10). 이처럼 PLO의 자살폭탄 테러공격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보복공격은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이런 테러리즘의 악순환은 오늘날까지 반복되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PLO측 과격무장단체들, 예컨대 하마스과 지하드 등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공격은 피가 피를 부르는 야만적 폭력의 극치를 이뤘다.

9·11 뉴욕 무역센터 등에 대한 자살테러공격 동기의 저변에는 비참한 팔레스타인 문제가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군사행동과 미국 내 탄저균 테러역공도 무역센터 자살폭탄 테러공격 후속편처럼 터져 나왔다. 생물테러는 지금까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이다.

2. 북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리즘

IRA는 초창기 때부터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테러리즘 공격유형을 주로 사용해 왔다. 이것은 북아일랜드를 피의 물결로 뒤덮어 영국인들을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토록 한다는 결의 표명이자 강력한 대영 메시지였다. 그들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격, 집단학살, 폭탄과 박격포공격 등이 주종을 이루며 주공격 대상을 영국군인, 자파 무장요원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보안요원들, 정치지도자들 이었다. IRA는 테러공격을 주로 북아일랜드 내에서 하지만 때로는 영국본토와 유럽 각국에서도 자행했다(최진태, 2001). 구교도 무장세력인 IRA와 신교도 무장세력간의 상호 테러공격으로 지난 30여년 간 3,63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신교도 민간인 희생자들은 2천여명에 달한다(세계일보, 2001.10.25). 민간인들의 이런 엄청난 희생자 규모가 바로 테러리즘이 반인륜적 범죄임을 알려주고 있다.

1987년 4월에는 IRA 테러리스트들이 북아일랜드에서 두번째 고위직 판사부부를 살해했으며 8명의 IRA 게릴라들이 북아일랜드 경찰에 의해 피살되었다. 판사 부부가 살해된 것은 해당 판사가 동료 테러리스트에게 마땅치 않은 형량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여영무, 2001).

1985년 2월에는 IRA가 박격포로 경찰서를 습격, 경찰 9명을 살해했다. 동료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한데 대한 보복 테러리즘이었다. 1984년 10월 마가레트 대처 영국총리가 남부영국의 Brightont 市 한 호텔에서 IRA가 설치해 놓은 폭발물이 터졌을 때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다. 이 폭탄사건은 5명을 살해하고 30명에게 부상을 입힌 끔찍하고도 무자비한 테러리즘의 전형이었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87).

1985년 11월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이 체결한 협정이 새로운 테러파동을 불러들였다. 이 협정은 아일랜드 공화국이 북아일랜드 내정에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해서 신교도들은 격렬한 테러공격으로 항의했다. 이 협정은 영국이 IRA 테러리즘에 굴복해서 북아일랜드를 아일랜드에 넘겨주려는 음모라고 신교 측의 맹렬한 저항을 받았다(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86). 따라서 IRA 테러 단체 못지않게 신교파들의 테러도 극성을 부렸다. The Ulster Defense Association, The Volunteer Force, The Red Hand Commandos, Ulster Freedom Fighter 등 신교도 단체들도 대응을 위한 많은 보복성 逆테러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구교도들 가옥, 술집, 클럽, 호텔과 기타장소들을 닥치는 대로 폭파하는 등 역테러로 응수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무고한 구교도들이 희생되었다. 이런 테러행태의 악순환은 피가 피를 부르는 잔혹한 유희행진이었다. IRA 테러공격도 무자비했다. 그 규모나 잔혹성 격렬도는 오늘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 테러폭력 이상이었다. 이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 7백명이 묵고 있는 Le Mon House 호텔을 폭파했고, 벨파스트 Royal Victoria 호텔과 북아일랜드와 런던의 쇼핑센터와 영국 내 기타도시들을 습격, 테러리즘을 자행했다. 1974년 11월 21일 IRA는 버밍감의 술집을 폭파, 19명을 살해하고 20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IRA는 또 밀고에 대한 보복으로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30여년 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테러사례들 중 비교적 근래의 테러폭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IRA 공화군은 1979년 폭탄테러로 18명을 죽였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인 98년 8월 15일 북아일랜드 오마시 중심가 대형 슈퍼마

켓 앞에서 차량폭탄 테러공격을 가해 28명을 죽이고 2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대한매일, 1998.8.17). 테러 용의자로 평화협정에 반대 IRA를 탈퇴한 <리얼 IRA>와 <영원한 IRA>가 지목되었다.

IRA는 2000년 2월에도 폭탄테러를 저지른 데 이어 7월 신교도 전통적 행사인 <드림크리행진>에서도 신교도들이 충돌, 3명이 사망했다.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평화과정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신교도들 마음속의 깊은 갈등양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한 평화정착 과정은 길고도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3. 인도-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영토분쟁과 테러리즘

카슈미르분쟁 테러리즘은 양측 정규군의 교전과 쌍방이 지원하는 무장집단 간의 테러와 역테러가 겹쳐 사상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80년대 후반 들어 내전성격이 가미돼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주에서 분리독립운동이 테러리즘으로 발전했다. 88년 결성된 이슬람 과격세력 <카슈미르 해방전선>은 인도정부군과 현재까지 계속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들은 2000년에는 칸투만두에서 델리로 가던 인도여객기를 공중 납치하는 항공기 납치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인도는 2000년 1월6일 이 여객기 납치범들의 공범 4명을 체포해 조사결과 이들의 국적이 모두 파키스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결국 이슬람 호전세력 테러리스트들 배후에 파키스탄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들은 카슈미르의 이슬람 단체인 <하르카트-울 안사르> 요원들이었다(세계일보, 2000.1.28., 한겨레신문, 2000.1.8).

2001년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에 바지바이 인도총리가 파키스탄의 평화회담 결렬을 비난하는 가운데 카슈미르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발생 20여명이 사상했다. 전날 밤 이슬람 무장단체요원이 카슈미르 남부에서 총기를 난사해 힌두교도 5명을 살해한데 이어 15일 오전 수류탄으로 만든 부비트랩으로 2명을 죽였다. 카슈미르 북부 한드와라 마을 인도 독립기념식장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리스트들이 던진 수류탄에 인도군 병사 5명과 민간

인 13명이 중상을 입었다(세계일보, 2001). 같은 해 8월 29일에도 카슈미르 여름 수도 스리나가르 남쪽 60km 지점 항갈파와에서 강력한 매설지뢰 폭발과 인도-파키스탄간 총격전으로 인도 병사 9명을 포함 모두 19명이 사망했다. 이 지뢰폭발로 버스에 오르던 인도병사 6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다른 병사 4명과 민간인 9명이 부상했다. 대파된 버스 안에서 시신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관리들이 전했다. 이 살상참사 테러 후 파키스탄측 분리주의 운동단체인 히즈볼 무자헤딘은 “인도가 점령지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지뢰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카슈미르 곳곳에서 보복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다(세계일보, 2001.8.31).

2001년 10월 18일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인도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 카슈미르지역에서 인도-파키스탄군간 교전이 벌어졌다.

파키스탄측이 자동수류탄 발사기와 중화기 등을 동원해 민간인 거주지역에 발사했다고 인도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별도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쌍방 무력충돌이 잇따라 이슬람 전투원 17명, 인도보안군 7명, 민간인 1명 등 25명이 사망했다.

카슈미르지역 테러도 중동 PLO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정규군간의 무력충돌과 닮았다. 인도군과 민간인들에 대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공격과 이로 인한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 세대 혹은 반세기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런 유혈 테러리즘과 보복전의 악순환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는 것이 당사자들뿐 아니라 전 인류의 큰 비극이다.

4. ‘알 카에다’의 미국 9·11 테러리즘

2001년 9월 11일 오전 7시 58분, 승객과 승무원 등 65명이 탄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67(175편)이 보스톤의 로건국제공항을 이륙,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그 바로 뒤를 이어 7시 59분, 같은 공항에서 92명이 탄 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767(11편)이 이륙, 역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8시 1분, 뉴욕 근교 뉴와

크 공항에서는 64명이 탄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57(93편)이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9시 3분 워싱턴 근교의 덜레스 공항에서는 64명이 탄 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757(77편)이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4대의 항공기에 4~5명씩 팀을 짜서 분승한 테러리스트들은 일찍이 없었던 세기적 참사의 희생자가 되기 위해 승무원과 승객을 살해 및 위협하고 조종석을 탈취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조종하는 4대의 여객기는 항로를 이탈하여 각자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미 연방항공국(FAA)이 조종석에서 발신된 비밀메시지로 여객기가 납치당한 것을 확인하고 처음 방공사령부에 통보한 것은 8시 38분, 그 5분 후 FAA는 두 번째 여객기가 납치당했다고 방공사령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바로 그 2분 후인 8시 45분, 아메리칸 항공 11편은 뉴욕시 맨해튼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타워에 돌입하면서 폭발했다. 그 18분 후,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남쪽 타워에 돌입했다.

아메리칸 항공 77편은 버지니아주 경계선 서쪽 끝까지 갔다가 방향을 180도 바꾸어 워싱턴시 쪽으로 날아갔다. 9시 40분, 이 여객기는 미국방성 건물에서 장성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서쪽 귀퉁이로 돌입했다. 이 여객기는 원래 백악관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승객들과 격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10시 10분, 목표물까지 가지 못하고 피츠버그시 근처에 추락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미국 본토 심장부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적 항공기 자살폭탄테러는 일본 '가미가제(神風)'의 진주만 폭격 이후 60년만에 본토를 공격당한 '피의 화요일' 참사 앞에서 미국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9·11 테러는 전대미문의 자살테러로 대참사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테러리즘의 잔악함에 전세계 인류의 경악과 분노를 샀다. 상상을 초월한 테러방식, 방대한 군사작전을 연상시키는 치밀함, 6천명을 넘는 사상자수, 전 지구적 충격 등 이번 테러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9·11 테러사건을 "전쟁행위(acts of war)"라

고 규정했고 “미국 역시 21세기 첫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자행된 지 26일 만인 지난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의 본거지와 훈련캠프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21세기 첫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군사행동으로 옮겨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反)테러리즘 전쟁이다. ‘알 카이다(AI-Qaeda)’테러리스트들은 우선 해외공관이나 군사시설 등 외곽을 치는 전통적 전술을 버리고 미국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했다.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를 상징하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세계 최강 군사력을 상징하는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펜타곤)을 동시에 겨냥해 대형 여객기를 몰아 명중시켰다. 좀더 큰 피해를 주기 위해 비행기의 고휘발성 연료를 폭탄처럼 활용했으며 무고한 승객을 아예 처음부터 자살테러의 동반자로 상정했다.

특히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완전 붕괴시키는데 최적 높이인 40~70층을 노렸고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행기 날개를 수평이 아닌 대각선으로 유지시킨 채 건물에 꽂는 상당한 비행실력을 뽐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테러는 현대 테러의 3대 유형인 폭탄공격, 항공기납치, 인질납치를 총동원한 방대하고 치밀한 군사작전이었다.

미국은 지난 10월 7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적 공습과 군대를 투입,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군사행동의 제1차 목표는 테러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하는 것이고, 둘째 목표는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셋째 목표는 전세계에서 테러리즘을 근절하는 것이고 이런 목표는 국제적 연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라덴은 지금 아랍과 이슬람권에서 자랑스런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빈 라덴은 테러조직 <알 카이다>(AI Qaeda)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직은 이슬람 근본원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5000여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백만장자의 52명 자식들 중 17번째인 그는 8천만 달러의 유산으로 현재 약 3억 달러의 사업 운영자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1.9.18). 그는 <타

바 인베스트먼트>라는 우산기업아래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농업과 금융, 투자은행, 건설, 무역, 호텔, 운송업 등을 운영했고 신용카드 사기 등 범죄 행위로도 큰 돈을 번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빈 라덴은 세계 최대규모인 아프간의 헤로인 교역에도 손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 학 제시카 스텐 교수(테러리즘 전공)는 “파키스탄 정부가 카슈미르 지방에서 게릴라 대리전을 위해 탈레반 정부나 이슬람 지하드에게 지원하는 자금 중 일부는 빈 라덴에게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그가 저지른 反美 테러리즘은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파 테러, 96년 사우디 다란 소재 미군막사 폭탄테러 등이다. 라덴은 98년 8월 케냐와 탄자니아 미대사관에 폭탄테러를 가해 미국인을 포함 민간인들 250명의 사망자와 5천명의 부상자를 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테러 관련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기지와 수단 제약 공장에 보복폭격을 했다(대한매일, 1998.12.25).

라덴은 또 2000년 10월 13일 예멘 아덴항에 정박하고 있던 8,300톤급 미국 구축함 콜호에 소형선박을 돌진시켜 폭탄테러를 가했다. 콜호는 왼쪽 측면이 흉하게 찌그러들었고 이 테러로 17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테러 후 FBI에 체포된 6명의 용의자들 중 2명은 아프가니스탄 라덴 테러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콜호 폭탄 테러자금은 알 카이다가 지원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들은 라덴의 직접 지령사실을 부인했다. 대부분 라덴의 테러리스트들은 세계무역센터 돌진 자살테러와 같이 범인들이 모두 자살함으로 물적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수사기관이 부딪히는 벽이다. 라덴은 기업화한 테러조직에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점조직 테러리스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테러목표를 지령한다고 한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라덴이 테러용 무기로 재래식 무기에서 화학제, 생물무기, 방사선 물질제, 또는 핵제무기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런 최첨단 신형무기로 무장한 테러병력은 5천명이라고 한다.

2001년 9·11 테러리즘 이후부터 세계 각국은 종전 소규모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연대 또는 사단규모 병력에다가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국가 정규병력 규모의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이 테러

조직들은 反美 깡패국가들의 은밀한 보호와 자금 지원을 받아 얼굴 없는 테러를 하기 때문에 공격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적을 잡아내 섬멸하기도 어렵다.

이런 신형 테러리스트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테러리즘 후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과격하고 호전적 이슬람 근본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은 특정 정치목적외 이념적 종말론적 세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테러를 聖戰으로 미화, 임무수행 후 알라신의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는 허황되고 광신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점이 테러리즘의 확산 억제에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IV. 국제 테러리즘 대응체제 구축방안

1. 국가 간 테러대응 협조체제의 유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존재라는 위협의 특수성이 일반적 테러조직이 주는 위협에 우선시 되는 구도에 놓여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개인은 물론 기타 다른 테러 네트워크는 위협의 비중면에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적극적 참여는 위협의 실체 측면보다는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외교적 차원에서의 국익고려에 의한 성격이 강하다.

역으로 북한에 대한 대테러 전략상의 위협인식은 현실에 비해 너무 미약하게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은 당시의 일반적 테러 사건에 비해 수법의 잔인성과 희생자 규모면에서 두드러지는 사건이었다. 아웅산 사건의 경우 아직까지도 한 국가의 각료 상당수가 한 장소에서 희생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의 변화나 정권별 통일정책의 변화로 인해 자극적 대응을 자제한다는 취지가 위협에 대한 인식 그 자체를 망각하는 현상과 혼재되어 버린 결과의 심각성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속제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 모두는 테러리즘은 인류의 공적이며 이상주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의 확고하고 체계적인 對테러리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테러리즘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와 대처 책임이 정보기관과 경찰에 있어왔으나, 새로운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리즘은 국가차원에서 방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의 불편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對테러리즘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안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국제테러는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뉴 테러리즘 양상을 보이고 있어, 汎國家的 次元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테러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예방 및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테러의 예방·방지 및 범인색출 등 전 과정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대응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對테러대책회의’와 평시 부처간 협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에 국내외 對테러 정보수집·작성, 기획·조정, 테러사건 수사 등 임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테러 발생시 무력·생물·화학·방사능 등 분야별 주무기관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태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경찰만으로 국가 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 통보한 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된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제한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의 위상으로 국제간의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대립 및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테러리즘 사건 발생 직후 우리 정부는 반테러리즘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미국 테러리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보복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빈 라덴의 조직인 알 카에다 소속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혹은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조직원들과 추종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02년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 축구인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에는 미국의 테러리즘 보복전쟁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직·간접적으로 미국을 지원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어 이들 국가의 선수단과 임원에 대한 테러리즘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도 높은 테러 대응책 강화로 테러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가을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 행사시 테러 발생 개연성이 더욱 높은 우리의 시대적 현실에서 금번 미국 9·11테러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對 테러대비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테러리즘 대응능력 체제의 정립

냉전종식 이후 자신들의 이념이나 정책을 표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전쟁보다는 테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테러는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이 아닌 상태하에서 일상생활 공간에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피해는 군사나 보안시설, 그리고 그 요원이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 시설 그 중에서도 고도기능이 집적된 거점시설과 일반인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테러대책이 일과성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가동되는 대책이 아닌 일상의 테러 및 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테러에 대하여 평소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직기반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테러에 대응 계획이나 프로그램 구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국내에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1988 서울올림픽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2000년

서울 ASEM,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특별대책반이 가동한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테러대책은 평소에 체계적인 접근기반 없이 필요시마다 이루어지는 일과성 대책으로 접근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테러대책을 안보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예방이나 대응의 대비가 필요한 재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서의 정책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보다도 더 열악한 국내 테러대응조직은 미국처럼 그 기능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능을 맡고 있는 산발된 조직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테러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책임지는 국가수준의 조직체계의 정립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테러의 양상이 대단히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기능부서의 통합은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많고 현실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같은 이유로 인해 상황의 인식과 예방, 신속대처를 위한 중추신경적 역할을 할 기구는 필수적이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적 기관은 군, 경찰, 검찰, 세관 외에도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정보공유와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⁴⁾ 이것은 문제가 단순히 법령의 제정이나 기구의 통합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좀더 확장하자면 지자체의 적극성과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對테러전략을 역설적으로 테러에 국한시켜서는 가용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현실성 있는 해답을 찾기가 곤란해진다. 오히려 테러를 포함한 마약, 해상범죄와 밀입국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식을 채택하여 국가위기관리기능의 통합과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의 의미는 수단적 기구의 전체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방향을 결정하며, 가용수단의 참

4) CDI에서 발간한 "Terrorism Project"에서도 군사력 가용능력에 대한 확보자산과 추가적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정부조직간의 협조(특히 CIA-DoD-FBI)와 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하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http://www.cdi.org/terrorism/military-priorities.cfm>.)

여폭과 통제의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할 중추기능적 위기관리기능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위기관리기능의 통합과 관련하여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자부의 민방위관련 기능 등 몇몇 기구의 통합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과 당위성과는 달리 통합의 현실성이 부처간 이해관계에 의해 의외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對테러 전략의 경우 상황발생 이후에 태스크 포스를 조직하거나 민·관·군 통합작전으로는 대처하기에는 예방능력의 부재, 대응의 적시성과 능력 발휘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의 중추신경적 기능을 할 기구의 통합과 법령 제도화 등은 비록 쉽지는 않을 것이나 미래위협에 대처하는 첫걸음이자 해결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3.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테러유형별 발생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평가의 산정, 그리고 대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하에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전략과 표준 대응절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획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특히 대도시정부의 관심제고와 함께 대응전략수립이 시급하다. 테러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는 재난과 같이 발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정부에 테러대응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축, 전문요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테러에 대한 정보의 입수 및 공유체계의 정립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도화되고 기술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에 있어 끊임없이 변모하는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

구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테러 유형, 정보수집 및 분석뿐만 아니라 재난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대책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테러방지법의 정비와 교육훈련체제의 완비

현재 통합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對테러 가용능력이 어떤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능력의 파악이다.

첫째, 군사적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대대와 경찰의 특경대를 꼽을 수 있다. 수방사의 일부 부대와 특전사, 해경, 그리고 향토사단의 지역 방어 및 인력 동원기능도 2차 투입가능 전력으로 포함할 수 있다. 둘째, 對테러관련 정보확보와 재정 등 연계수단의 차단 측면에서 출입국 관리부처와 검·경의 의사과, 마약담당 부서, 공항과 해안지역의 세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 및 위기관리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국가안보회의나 비기위까지도 꼽을 수 있으나 테러관련 가용능력으로 보기에 는 거리가 있다. 이외에도 기능이나 인력면에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수단이 더 많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수준의 가공할 파괴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對테러 관련 법규를 제정·보완하고 전담기구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反테러 관련 12개 국제협약⁵⁾ 중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5개 협약의 가입

5) 테러관련 12가지 특별국제협약

①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②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③민간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④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⑤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⑥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⑦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⑧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⑨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⑩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⑪폭탄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⑫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한국은 위 협약 중 ⑧-⑫까지 5가지 국제협약을 제외하고는 ①-⑦까지 국제협약에 이미 가입했다. ⑫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01년 10월 9일 서명하였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중에 있다.

을 위한 국내법 정비 등 조속한 가입 추진과 국내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제정되어 對테러센터 구성 등 법안 후속조치로 국가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테러징후 감지요령, 신고 및 대피요령 등 '국민행동요령' 및 '준수사항'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각종 마스크,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합동으로 분기별 1회 모의훈련을 실시(민방위훈련과 연계), 각 기관 대응요원에 화학물질별 세부대응요령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유독물 취급업소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테러리즘은 오늘날 세계적인 보통 현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이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훌륭한 對 · 反테러 정책을 제도화하여 이를 시행한다고 해도, 테러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테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테러의 주체는 국가에서 조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화되고 분자화된 개인으로 바뀌고 있고, 자폭테러와 함께 테러의 주체도 사라지기 때문에 테러의 주체도 규명하기 어렵다.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테러 집단)는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첨단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물리적 세계가 가상공간의 세계로 쉽게 전환되는 사이버시대 도래에 따른 사이버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요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며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對테러 기구를 사후현장 위주의 정책기구에서 사전 예방적 대응책 개발 정책기구로 활동 중점을 전환하고, 테러리즘을 국가재난의 성격으로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민·관·군 참여 통합위기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對테러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테러방지는 테러 발생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시 관련 기관의 국·내외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는 등 예방정책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국방부(2001). 『화 · 생 · 방 · 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량살상무기 (WMD) 문답백과”. 서울: 오성기획.
- 국방부(2001). 『국제 테러리즘 -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서울:멀티넷.
- 국방대학교(2001). “국제테러현황과 대테러 캠페인”. 세미나 발표논문, 안보문제연구소.
- 김열수(2001). “국제사회의 대 · 반테러 - 제도화, 한계, 대안”.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발표논문.
- 김태준 · 조성권(2002). “국제테러와 한반도”. 『국방연구』, 45.1.
- 대한매일(1998), “북아일랜드 차량폭탄 테러, 28명 사망, 200여명 부상”, 8.17:11.
- 대한매일(1998), “지구촌 테러/그래픽 진단, 98세계”, 12.25:11.
- 동아일보(2001). “美 4차례 휴전중재, 모두 실패로- 이-팔 유혈분쟁 1주년”, 9.28:14.
- 동아일보(2001), “이스라엘 장관 팔 무장단체에 피살”, 10.18:1.
- 동아일보(2001), “자살 폭탄테러로 97명 사상”, 8.10:10.
- 박형 · 박찬기 · 최진태(2002). “국제테러의 원인과 배경”. 『국방연구』, 45.1.
- 박휘락 · 김상범 · 남길현(2002). “국제테러 대응”. 『국방연구』, 45.1.
- 세계일보(2000), “WT사설, 카슈미르의 발칸화”, 1.28:7.
- 세계일보(2001), “미첼보고서 요지”, 5.23:9.
- 세계일보(2001), “북아일랜드 평화서곡-IRA 무장해제 의미-”, 10.25:9.
- 세계일보(2001), “印度, 카슈미르에서 반군테러 20명 死傷”, 8.16:9.
- 세계일보(2001), “카슈미르 총격전-지뢰폭발 19명 사망”, 8.31:9.
- 송도영(2001). “이슬람 근본주의를 생각한다”. 『당대비평』, 겨울호.
- 여영무(2001). “국제테러리즘 사례와 억제방안”. 제31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발표논문.
- 윤명오(2001). “대도시 테러재난과 위기관리”. 서울시립대학교 지진 · 방재연구소.
- 윤현근 역(2002). “2001년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이기철(1999). “민방위 생화학 대비태세 분석 및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합동참모본부, 연구보고서.
- 조선일보(2001), “사우다 富豪의 17번째 아들- 22세 때 아프간 參戰”, 9.18:5.
- 최진태(1997). 『테러, 테러리스트&테러리즘』. 서울:대영문화사.
- 최진태(1999). “사이버 테러리즘의 본질과 전망”. 『한국 경찰학회지』.

- 최진태(2001). 생화학무기: 인류 최후의 적, 독가스에서 탄저균까지. 『신동아』, 11월호.
- 하정호(2001). “굿바이 헌팅턴, 굿바이 아우슈비츠”. 당대비평 · 평화네트워크 공동기획, 『전쟁과 평화』. 서울:삼인.
- 한겨레신문(2000), “여객기 납치범은 파키스탄인/인도, 공범 4명 신원확인”, 1.8:13.
- 황의방 ·한영탁(역)(2001). 『새로운 전쟁: 빈 라덴 조직과 미래의 테러』. 서울: 도서출판중심.

International Herald Tribune(1986), Sep.30: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1987), "IRA Issues Threat to U.K. Leaders", May,11:1.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0). "Global Trends 2015: A Dialogue About Future With Nongovernment Experts". Washington: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Paul R Pillar.(2001).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Brookings Institution Press.

Paul Wilkinson.(1987).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London : Macmillan.

Simon Reeve, *The New Jackals: RamZi Yusef*.(2001). *Osama bin Laden and Future of Terrorism*.

U.S. Department of State.(2001). "Overview of State-Sponsored Terrorism," in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 Washington: DoD.

<http://www.nis.go.kr>, 국제 테러리즘 정세.

<http://www.terrorism.or.kr>, 한국 테러리즘 연구소.

ABSTRACT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Sang-Yul Suh

Terrorism which became today's common phenomena over the world i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the world confront. Although International society make and operate outstanding anti-terrorism system, terror would never end without solving fundamental problems. The main body of terrorism converts from nation to organization and from organization to cell,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us to recognize the main body.

Since the target of today's new terrorism i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terrorists will never hesitate to use mass destruction weapons such as nuclear, biological, chemical weapons, and also use cyber-technique or cyber-terrorism.

So, effective counter-terrorism measures should be performed as follows.

First, it must be better for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make long-time plan of solving fundamental problems of terrorism other than to operate directly on terror organization and its means.

Second, preventive method should be made.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eradicating terrorism is preven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move environmental elements of terrorism and terrorist bases, and to stop inflow of money and mass destruction weapons to terrorists.

Third, integrated anti-terror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zed and operated for continuous counter-terrorism operations. Also international alliance for anti-terrorism should be maintained to share informations and measures.

Fourth, concerned department i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counter-terrorism plans in their own parts as follows and make efforts to integrate the plans.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conventional terro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bio-terror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nuclear-terror

Especially, they should convert their policy and operation from post-terror actions to pre-terror actions, designate terror as national disaster and organize integrated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including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elements.

In conclusion, pre-terror activities and remedy of fundamental causes is the best way to prevent terror. Also, strengthening of intelligence activ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s, and preventive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must not ignored.

【Key Words : Terror, Terrorism, Anti-terrorism】